

□ 노동자 정치세력화 가능한가

우리도 남부럽지 않은 '정치꾼' 될 수 있다

노동자, 대중속 지지기반 탄탄...실득표력은 미지수

정 연 옥

<전국연합 정책부장>

진보운동의 정치세력화란 노동대중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활동하는 정치집단들에 의해 결성된 유력한 진보적 민주정당이 노동대중 및 기타 소외주변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제도권 정치에 직접 진출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정치세력화의 이념과 궁극목표는 두 말할 것 없이 진보적 민주정당의 집권을 통한 사회개혁이다.

한국 노동조합 운동은 따로 파업을 통해 정부와 제도권 정당들을 압박하여 노동관련 정부정책까지도 수정하고 국민적 관심을 우호적으로 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쟁력 있는 노동계 출신 또는 진보적 유명 정치인과 전문가 집단을 확보해야 하고 막대한 정치자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적어도 노조에 조직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이나 진보적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정치적 연대성을 내부적으로 갖추고 또 노동자들이 이 주체적 연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객관적 정치상황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진영과 노동운동진영의 힘을 객관적으로 타산할 때 우리의 역량은 아직 이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다. 우리는 일반적 사회정책과 정치노선도 마련되지 않았고 전국적,

지역적 지명도로써 제도권 정당의 인물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정치가와 전문가 집단도, 또 막대한 정치자금도 없다. 더구나 노동자 대중 속에 사회 투쟁적 연대력은 있지만 선거에서까지 관철되는 정치적 연대성은 아직 일반적으로 허약하다. 이들 대다수가 지역주의, 반공주의적 극우보수주의, 이른바 북풍(北風), 계급 편파적 보수언론등 여러 정치 사회적 관계를 뚫고 정치적 연대의 기반이 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노동운동은 일찍이 노조의 건설과 합법적 지위를 위해 싸우던 1970-80년대의 맹아기적 단계를 넘어섰다. 지금은 온 국민의 지지 속에서 정부와도 일전을 벌였고 또 벌일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노조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진보적 민주정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공적 사회투쟁에 부수되는 정치적 과실들을 모조리 제도권 보수정당들에게 눈물을 삼키며 넘겨져 왔다.

'다 팔자라니' 하는 식으로 앞으로 이라고만 있어야 하는가? 한국 노동운동은 이렇듯 묘한 과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싸워서 남주는' 운동수준을 넘어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과실을 수확해야 하지만 이를 수확할 독자정당을 결성하기에는 정치역량이 아직 역부족인 '과도기' 단계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에 과도기적 정치조직 또는 준정당적 성격의 정치연대를 건설하여야 하는 것이다.

얼마전 18년만에 정권을 재 획득



▲좌측은 기자노동조합의 기자살리기 시위현장이며 우측은 96년 1월 전국세무관 서장회의 <사진 : 한겨레21>

하계된 영국의 경우 노조가 단적으로 노동당에 가입하기 때문에 노조원은 자동적으로 노동당원이 되고 단위 노조위원장 및 연맹위원장은 노동당 간부이며 자연스럽게 노총과 연맹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일부 거대사업장의 위원장은 동시에 국회위원직을 겸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열성 노조원은 대개 사민당원이고 노조의 연맹급 위원장과 노총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거의 사민당 소속 국회의원이거나 노총 부위원장 중 1명과 소수와 평 노조원들은 보수정당 당직을 가질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90%에 달하는 노

동조합 조직론을 바탕으로 사민당은 장기간 집권을 해오고 있는데 정당 부각로직 대다수가 노동조합 지도자 출신이며 조합원들은 수많은 지역모임을 통해서 사민당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얼마전 한국의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민주민주노동운동의 정치적 대표체인 전국연합이 공동으로 이번 15대 대선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언론에서는 쳐다 봐주지도 않고 있다. 어려운 싸움이다. 혹자들은 이번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비유하지만(결과는 돌팔질로 다윗이 거구의 골리앗을 쓰러뜨린다.) 정치적으로 '무지한' 생각에 다를 아니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와 한국정치사에서 처음

있게 되는 민주적 정권교체라는 두 마리의 토끼는 놓치면 안된다.

이 말은 '정치적 무임승차'만을 꿈꾸는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안되면 구입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구비하자는 것에 다를 아니다.

옛말에 '떡만 김에 제사지낸다'라는 말이 있다. 아마도 나무라는 뜻의 구절이다. 시집간 처자가 처음으로 시댁에서 제사상을 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으로 장도보고, 손수 음식을 만들어 제사상에 올려야 한다. 물론 '음식을 먹어주는 손님'들은 많을수록 좋다. 내년 5월 지자체 선거를 바로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15대 대선은 그래서 '정치'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사망사건 개요

과잉폭력인가, 단순추락사인가

또 한명의 젊은이가 제단의 재물로 바쳐졌다.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광주대 89학번)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의 폭행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 측은 지난 16일 새벽 0시경 수배중인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광주시 북구 오차동 청암아파트를 급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아파트 창문 밖에 설치된 TV 케이블선을 타고 도망치다 20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고직후 현장에 다녀온 김씨의 아버지 김현국(62)씨는 20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다는데 추락지점에 아무 흔적이 없었던 점과, 부검결과 외상은 없으나 간을 비롯해 내장이 파열되어 있던 점, 갈비뼈가 부러져 살을 뚫고 나온 점, 근처사람(경비원 등)이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던 점등을 지적하며, "경찰측의 과잉폭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지역 시민 사회단체와 학생들도 18일 비상

회의를 소집하고, 김씨 사망과 관련한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곧 김씨의 사망에 따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검거작전이 벌어질 당시 김씨와 같이 머물고 있던 전모씨(광주대 91학번) 등 2명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전씨는 현재 구속수감 중이며, 공익근무요원으로 알려진 또 다른 한 명은 경찰서에서 혼방된 뒤 접촉이 안되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전씨를 면회한 사회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전씨는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나를 허리띠로 포박했고, 머리를 바닥에 박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언론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추락사라고만 다루고 있으나 부검결과와 당시 정황으로 볼때 단순추락사로 보기가 어려워 학생들의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 <사회부>

□ '빨간 마후라' 이용하는 기성세대의 세대

매 맛을 쪽은 오히려 어른들

서울강남일대 청소년들 사이에 '빨간 마후라'로 불리며 유행하던 음란비디오에 출연한 남녀주인공들이 모두 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밝혀져 우리를 경악케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빨간 마후라'에 출연한 청소년을 잡아들이고 이러한 10대들에게 첩보를 가한다고 해서 청소년 성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빨간 마후라'가 언론의 질타와 사회의 제재를 받은 후 그 주인공들이 청소년의 스타가 되고 문제의 테이이 학원이 뿐만 아니라 포르노 시장에서도 폭발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성문제의 접근방식이 어딘가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

청소년 성문제 접근방식에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우선 어른들 성의식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성에 대한 매우 큰 수치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갖는 이중적 태도와 남성의 성충동에 대한 너그러운 등의 기성세대의 잘못된 의식이 그것이다. 어른들에 의해 상업화된 '빨간 마후라' 류의 '빨간 보자기', '빨간 스카프' 등의 범람과 '빨간 마후라' 폭발현상들이 그 사실에 단적인 증거일 것이다.

다음으로 큰 문제는 언론의 특종경쟁에 의한

여과없는 사건 게재이다. '빨간 마후라 사건'을 놓고 한 신문에서 '성운리 뿌리째 흔들', '인륜이 무너졌다' 해도 이렇거나 '비판사설과 함께' '열다섯살 알몸, 소녀의 눈물'이라는 성충동을 자극하는 선정적

인 제목의 기사가 한지면에 공조하는 형편이니 이러한 신문에서는 논조조차 찾아 볼 수 없는 듯하다.

비디오 유포를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포자기로 비디오를 찍었다는 최모양을 '15세짜리 포르노 배우'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단란주점에서의 윤간경험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정도였으나 단지 10대 소녀의 방종한 성으로 몰아붙인 것은 분명한 언론의 횡포이다.

어른과 언론의 이러한 이중성과 선정적 보도태도가 결과적으로 한 청소년을 학교로부터 몰아내고 그 인생을 망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한 학생에 그치지 않고 전체 청소년으로 확산될 것이다.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언론의 자중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김용운 기자>

강 단 시 론

교육개혁과 대학

신 정 현 <정치외교학과 교수>

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이를 시정하고 새로운 발전기반을 다지기 위해 교육개혁은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학의 우수성이 교육개혁의 방향에서 얼마만큼 새로운 변화를 추진해 왔느냐에 따라 판가름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수준이 세계 선진국의 대학들에 비해 떨어지고 있음을 유감할 때 대학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변혁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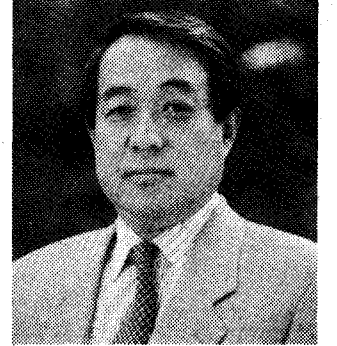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까지 다각도로 추진해 온 대학의 변화가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과연 올바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깊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이 고고한 상아탑으로서만 남아있을 수 없다. 합치라도 그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진리탐구의 전당이라는 점에 있다. 이런 본질적 가치를 몰각할 때 대학의 존재의미는 이미 상실된 것이다.

대학의 존재가치가 진리탐구에서 찾아져야 한다면 대학에서의 학문활동이 순수한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보다 많은 비중이 주어져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현실은 응용, 기술분야에 치우쳐가고 있다.

물론 대학교육에서 응용, 기술분야의 연구와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교육의 우선순위와 교과과정의 선택에 있어 순수한 기초분야가 오히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는 학생들간에 등한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사회의 수요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대학은 사회발전과 문명의 진보를 이끌어가는 지적원천으로 존재해야 한다.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부분 반지성적인 물질적 상업주의와 획일적 경쟁주의 그리고 형식적 관료주의에 물들여지고 있다. 대학은 관료집단과 동일시 될 수 없고 또한 대학의 경영은 기업의 경영과 같은 것이 될 수 없다. 기업은 이윤추구의 목적이 있지만 대학은 진리탐구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관료집단이 형식주의에 매달려 있는 반면 대학은 자율과 창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집단은 크게 다른 것이다.

한편 대학의 생명은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있다. 본래 진리는 대학인의 자유로운 사고체계와 탐구자세가 형성될 때 얻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은 어떠한가? 대학운영자체가 관료적 절차와 형식에 치우쳐 있고 개혁의 본래 취지가 대학의 자율화에 있음에도 정부로부터의 규제와 간섭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진정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은 본질상 권력집단일 수 없다. 그리고 대학은 특정한 도그마(dogma)에 의해 이끌려져서도 안된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겸허한 자세로 쉽게 잡히지 않는 지혜와 진리를 찾아 자유롭게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집단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이런 대학의 모습이 유지되면서 발전을 위한 수단들이 강구될 때 대학에서의 교육개혁은 진정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동부화재 기네스북 기록 인증서 획득!
최초의 자동차보험 개발회사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동부화재-자동차보험 전문기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난, 더 넓은 세상으로 간다!

물고기는 어항속에서 한동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먹을 것은 늘 넘쳐났고, 위협하는 적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물고기는 어항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어항밖의 세상이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바깥 세상에는 무시무시한 물고기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엄마 물고기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니다. 어느날 밤, 물고기는 바다를 향한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물고기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계속 헤엄쳐 갔습니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남다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지금처럼 흔치 않은 시대에 한발 앞서 자동차보험의 미래를 열어온 동부화재 — 도전하는 젊음과 함께, 새로운 보험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자동차보험의 전통을 이어가는
동부화재

동부화재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상시채용제도 운영중)
http://www.dongbuinsurance.co.kr 문의 : (02)262-3242 ~ 9